

| | | | |
|---------------|-----------------------|-------|------------------------|
| 보도 일시 | 2022. 4. 24.(일) 11:00 | 배포 일시 | 2022. 4. 24.(일) 11:00 |
| 담당 부서 <총괄> |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 책임자 | 과장 장재동 (051-718-0320) |
| | | 담당자 | 사무관 조희영 (051-718-0332) |

내일 밤에 비 시작, 모레 새벽~오전 강하고 많은 비

- 시간당 30~50mm 매우 강한 비, 순간풍속 20m/s 강풍, 2~4m 높은 파고 -

주요 내용

-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50~120mm 강하고 많은 비
- 경남내륙(지리산부근 제외) 20~70mm
-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중심 순간풍속 20m/s의 강풍
- 남해동부와 동해남부해상 2~4m 매우 높은 물결



[4월 26일 새벽 기압계 모식도]

- 부산지방기상청장(청장 김현경)은 내일(25일) 밤(21시)부터 비가 시작되어 모레(26일) 새벽(00시)에서 오전(12시)까지 부울경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모레(26일) 새벽(00시)부터 오후(18시)사이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며, 해상에서도 모레(26일)에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와 함께 상세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기압계 전망]

-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울경 지역에 내일(25일) 밤(21시)부터 모레(26일) 오후(18시)까지 서쪽에서 다가오는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일본 동쪽해상에는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우리나라 서쪽으로부터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기압차가 커지고, 이로 인한 강한 남풍에 의해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강수 전망]

-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일(25일) 밤(21시)에 경남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모레(26일) 새벽(00~03시)에는 부울경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26일) 오후(18시)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 특히, 모레 새벽(00시)부터 오전(12시)사이 강한 남~남서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예상 강수량 (25일 밤(21시)부터 26일 오후(18시)까지 >

- 부산, 울산(26일), 경남남해안, 지리산부근: 50~120mm
- 경남내륙(지리산부근 제외): 20~70mm

□ (예보 변동 가능성) 이번 강수는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의 강도와 강수량, 바람의 세기 등에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강수량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풍 전망]

□ 모레(26일) 새벽(00시)부터 오후(18시) 사이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35~50km/h(8~14m/s),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며, 그 밖의 경남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형크레인, 간판 등 실외 대형 설치물 파손과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붕괴가 우려되니,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철저
- 시설물 파손과 간판,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니,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
- 야외 작업자(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배달업 등)의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
- 해상교량, 산간도로와 터널 입·출구에서 돌풍이나 급변하는 바람 주의
- 강풍 및 높은 파고로 항공 및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 확인

[풍랑 전망]

- 남해동부와 동해남부해상에서는 모레(26일) 새벽(03~06시)부터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선박 침몰, 기름 유출, 정박 선박 추돌로 인한 2차 사고, 양식장 피해 등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내일(25일) 밤(21시)부터 모레(26일) 사이 남해동부와 동해남부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또한, 모레(26일)에 부산과 울산, 경남남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